

‘문·이과 통합 수능’ 변화된 리그에서 내 객관적 위치는?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25일 실시 선택과목별 수험생 유불리 주목
평가 성적에 연연하지 말고 본인의 준비상태 점검 용도로 활용해야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 수능능력시험(수능)의 첫 모의고사인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오는 25일 실시되는 가운데, 선택과목별 난이도에 따른 수험생별 유불리 등 '변화된 리그'의 영향이 주목된다.

22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부터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되고 EBS 연계율과 연계 방식을 바꾸는 등 큰 폭의 변화가 예정돼 있다. 고3 수험생이든 학부모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이다.

◇수능 구조 개편 이후 자신의 객관적 위치 파악 기회=이번 학력평가는 공통과목인 수학 I 과 수학 II의 모든 범위에서 출제된다. 선택과목은 일반반 시험범위에 포함돼 있다. 수학 문항 배열을 보면 1

~22번은 공통과목, 23~30번은 선택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배점은 공통과목 75%가량, 선택과목 25%가량으로 설정돼 있다. 공통과목의 준비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더구나 올해 고3 수험생은 코로나19로 고2 때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객관적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어느 해보다 중요할 수 있다.

국어 영역도 '공통+선택과목' 방식으로 바뀐다. 국어의 공통과목은 독서, 문학이다.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다. 공통과목 34개 문항, 선택과목 11개 문항이 출제되며 배점은 각각 75%가량, 25%가량이다. 국어의 경우 수학처럼 문

과생과 이과생의 실력차가 뚜렷하지 않다. 선택과목도 수학처럼 문·이과가 극명하게 갈리지 않는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수험생 3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문과생은 '언어와 매체' 57.6%, '화법과 작문' 42.4%로 나타났다. 이과생의 경우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이 각각 51.2%와 48.8%였다.

따라서 고3 수험생들이 어떤 과목을 얼마나 고를지 선택과목 응시집단 데이터의 윤곽이 드러난다는 점도 이번 학력평가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문·이과 수험생 첫 경쟁... 문과생이 더 손해 볼지 숙단 일러= '변화된 리그'에서 치러지는 첫 학력평가인 만큼 달라진 리그에 수험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가·나형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수험생들이 수학 I 과 수학 II를 공통과목으로 치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세 과목 중 하나를 고르게 된다. 공통과목에서 문·이과생이 같은 문항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문과와 이과

가 통합 리그에서 순위 싸움을 벌이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번 평가에서 문과가 일반적으로 손해를 볼지 아직 알 수 없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조정점수를 부여해 격차를 줄일 계획이기 때문이다. 조정점수는 선택과목 응시집단 규모와 수준, 공통·선택과목 난이도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번 평가에서 공통과목에 변별력 있는 문항을 집중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선택과목에서 난이도 차이가 심각하게 발생하면 수험생별 유불리에 대한 논란이 일뿐만 아니라 문·이과 통합형 수능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 수 있어서다.

이과생들을 의식해 공통과목이 문과생들이 치러왔던 수학 나형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평가원이 학력평가와 모의평가에서 드러난 수험

생의 학력 수준을 분석해 실제 수능의 난이도를 설정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난이도 예측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지만, 수능의 문제 유형과 판도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학력평가 성적에 연연하지 말고 수험생 본인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용도로 활용하라고 입시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난해까지는 국어와 수학 등 특정 영역의 난이도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졌다면 (공통+선택과목으로 구성되는) 선택형 수능에선 영역별 난이도뿐 아니라 선택과목별 난이도, 선택과목별 지원자 수 등 여러 변수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며 "수험생들은 여러 차례의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EBS 연계를 하라과 맞물려 과목별 출제 패턴도 잘 익혀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대 교정 홍매화 '활짝' 22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캠퍼스를 찾은 시민과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홍매화를 촬영하고 있다. <전남대 제공>

계속비 제도 활용 시설사업비 이월액 최소화 추진

광주시교육청

광주교육청이 매년 과다 발생하는 이월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설사업비 예산운용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 집행시기에 맞는 예산편성과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시설사업비 이월액 감소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학교 시설사업비 중 석면·내진·화장실 개선 공사는 적정 공사기간이 50일 정도 소요된다. 하지

만 공사 시기가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부분 겨울방학 기간에 가능하므로, 당해연도 집행 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이 불가피했다.

시 교육청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월률이 높은 석면·내진·화장실 개선 공사는 계속비로 1차년도에 전체 설계비와 시설비 일부를 편성해 설계·계약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2차년도에 나머지 시설비를 편성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냉난방교체와 외부창호공사 등 여름방학 기간

중 공사가 가능한 경우, 본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여름방학 전 설계, 관급 자재 구매, 계약대상자 선정 등을 마치고 여름방학 기간 중 공사를 완료해 이월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광남기 광주시교육청 교육시설과장은 "시설사업비 예산편성 개선을 통해 매년 과다 발생하는 이월액의 최소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체험관 조성

LINC+사업단

광주도시철도공사와 함께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이 지역사회 공헌사업의 하나로 광주시 지하철에서 시민들에게 인공 지능(AI)과 관련된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문화예술체험관을 광주도시철도공사와 함께 조성한다.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은 최근 총장로 산학협력거점센터에서 광주도시철도공사와 문화예술 체험 및 다양한 콘텐츠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

은 금남로 4가 지하철역 내에 AI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할 수 있는 문화예술체험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공헌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업으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대학교와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쌍방향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결과이다.

이 체험관에서는 디지털 커리큘처를 비롯한 인터랙티브 아트 활동, VR 미술체험 등 인공지능(AI) 기반 문화예술 콘텐츠 체험, 광주정신 제고를 위한 영상예술작품 상영 등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2021년 대학 진로 탐색캠프 운영대학' 선정

중·고1 진로탐색 프로그램 진행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는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21년 대학 진로 탐색캠프 운영대학'에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대학 진로 탐색캠프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진로 체험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광주대는 이번 캠프 선정으로 중학생 및 읍·면 지역 고등학생 1학년이 참여하는 체험 중심의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또한 참여 학생들이 전공 및 진로를 실질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학부(과) 재학생이 직접 진행하는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수와 졸업 선배 등 다양한 유형의 멘토가 참여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

들에게 진로 탐색과 설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고교생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꿈꾸는 공작소'와 '지역 중·고교생 직업 체험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대는 지난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일환으로 지역 중·고교생들의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고 직업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주기 위해 지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김상엽 입학처장은 "소외지역 학생들의 진로 체험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면서 "취업·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인 우리 대학의 특색을 살려 전공 정보와 진로 체험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